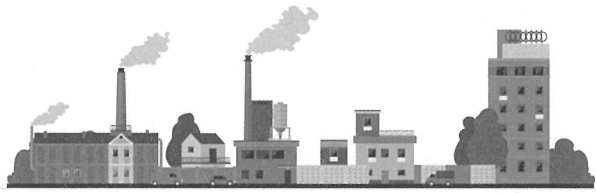


어두운 산업혁명을 그린 영국 화가 Lowry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노재훈



라우리(Laurence Stephen Lowry, 1887~1976)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산업화의 현장을 화폭에 담은 대표적인 영국의 화가이다.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던 맨체스터 근교의 랭커셔(Lancashire)에서 태어나, 또 다른 공업도시였던 펜들버리(Pendlebury)에서 생활하며 공장지대의 노동자들을 주된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¹⁾ 항상 소외된 군중들과 척박한 도시의 모습을 담으려 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도시의 부조리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화폭에 담기에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술가로서 도시의 삶을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하였다.²⁾

라우리가 활동을 시작한 20세기 초의 영국은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세계의 공장이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인구, 소득, 기대 수명과 같은 지표들이 두드러지게 상승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으나, 노동자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지표만큼 개선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경제 성장의 대가는 여전히 대부분 자본가의 차지였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아동 노동 착취,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해 고달픈 생활에 허덕여야만 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19세기부터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 공장법(Factory Act)을 제정하여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 취업연령, 야간노동의 금지, 휴일과 휴식시간, 보건과 교육조항 등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20세기 초 라우리의 여러 작품 속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³⁾

이처럼 그는 산업화된 도시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림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다만 그는 그가 거주하던 지역의 도시와 노동자들을 주된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단지 영국의 시대상만을 반영한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은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그가 줄곧 사회체제를 직면하고, 산업화된 도시의 피상적인 풍경이 아닌 본질을 화폭에 옮기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남긴 말에서 인생 전반에 걸친 그의 노력과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나는 산업화의 현장을 보았고 그 영향을 받았다. 줄곧 이를 그리고자 했다. 가장 잘 그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초상화로 볼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있다. 초상화에 근접한 작품들도 그가 관찰해왔던 인간 군상의 일부를 그림에 옮겨놓은 것에 가까웠다.

그는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는 것보다 다양한 특징을 가졌지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놓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이 ‘The cripples(불구자들, 1949)’이다.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하여 교외지역에 거주를 하곤 하였다. 카트나 목발에 몸을 의지한 사람들, 팔을 잃고 손대신 갈고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 기괴하게 보이는 자세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라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소재로 삼는다면 그의 작품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그는 그 주변의 익숙한 모습을 하나로 모아 화폭에 담고자 하였다.

라우리는 맨체스터의 ‘불구자들’을 관찰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전쟁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정중앙의 목발을 짚는 남자는 우측 안면마비와 좌측하지 마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뇌졸중 환자처럼 보인다. 그 뒤에 있는 여성은 사경을 앓고 있는데,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흔한 질환이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림을 차지하고 있다.



The Cripples (불구자들) (1949); oil on canvas, 76.3 cm × 101.8 cm

이 작품의 '불구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찰했던 대상들을 한 곳에 모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라우리의 친구 중 한 명은 이 그림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많은 불구자들을 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라우리는 친구를 이끌고 맨체스터에서 로치테일 지역까지 운전하며 불구자들의 수를 세어보았고, 총 101명을 찾았다고 한다.

그 당시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환을 가지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불구자들'이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생계를 찾아 떠돌고 있는 모습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⁴⁾

주석

1. Tilly Marshall (1981). *Life with Lowry*. London: Hutchinson.
2. Maurice Collis (1951). *The Discovery of L.S. Lowry*. London: Humphries for Alex Reid & Lefevre.
3. Berger, John (1992). *About Looking*. New York: Random House.
4. T.J. Clark & Anne M. Wagner (2013). *Lowry and the Painting of Modern Life*. London: Tate Publishing.